

28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6023.66 (-732.09)	705.85 (-59.01)		
↓ 금리 (국고채 3년)	↓ 환율 (원·달러)		
3.840 (-0.025)	1460.35 (-8.15)		



코스피 10% 폭락 ‘검은 화요일’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2.09p(10.84%) 내린 6,023.66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01p(7.72%) 내린 705.85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코스피, 732.09p 하락 6023.66
3개월 여 만에 장중 6000선 붕괴
외국인, 하루 동안 4.9조 순매도
코스피·코스닥 동반 ‘서킷브레이커’

국내 증시가 28일 장중 한때 5900선으로 밀려나며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과 더불어 중국이 반도체 노광 장비의 ‘자급자족’ 가능하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도 시장을 짓눌렀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2.09포인트(10.84%) 급락한 6023.66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5992.91까지 밀렸다. 외국인이 약 5조원을 팔아치우는(순매도) 동안 기관은 6400억원, 개인이 4조30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 지수는 7.72%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장치)가 발동된 데 이어, 20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까지 작동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7.58% 급등해 83.43까지 치솟았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발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여러 잡음은 전세계 증시에 쓰나미급 충격을 줬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4.99%, 샌디스크는 11.02%, ASML은 5.80%, 마

이크론은 2.25% 각각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23% 하락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역시 7.47%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95% 하락했다. 다만 가란지수(-4.65%)를 비롯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증시 상장엔 긴장했다. CXMT는 지난 27일 상장 당일 미국 인텔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데다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최대 666억 원(약 14조5000억 원)을 조달했다. 자국 빅테크의 물량 지원 등에 힘입어 메모리 업계에 빠르게 추격해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면에 계속>

/신화문 기자 godhe@metrosoul.co.kr



metro

임상 청신호… ‘K-백신’ 글로벌 속도

유바이오로직스, RSV 백신 본격개발 후보물질 ‘EuRSV’ 임상 2상 준비 GC녹십자 ‘GC4006A’ 연내 2상 착수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과 임상 성과를 앞세워 백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파이프라인이 임상에 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생태계까지 구축하며 K백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2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바이오로직스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백신 개발을 본격화한다. RSV 백신 후보물질 ‘EuRSV’ 임상 1상 결과보고서를 수령하고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EuRSV 임상 1상 결과를 공시했다. 해당 임상에서 EuRSV는 안전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입증했다. 백신 관련 중대한 약물이상 반응 등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면역원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다. 모든 백신군에서 위약군 대비 RSV를 방어하는 특이 IgG 항체와,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RSV-A 및 RSV-B에 대한 중화 항체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세포성 면역반응도 효과적으로 유도됐다.

GC녹십자그룹 국산 백신 기술에 다각

도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체 구축한 mRNA-LNP 플랫폼 기반 백신 ‘GC4006A’에 대해 임상 2상 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GC4006A 임상 2상은 만 19세~85세 성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최적 용량과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올해 안에 임상 2상 착수, 2027년 하반기 임상 3상 IND 완료, 2028년 최종 품목허가 획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AI 기반 맞춤형 mRNA 구조체 설계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를 주관한다. 이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45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블록버스터 약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박과마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GBP410’은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GBP410은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포트폴리오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핵심 과제로 오는 2027년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9년 17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폐렴구균 백신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브라질과 방산·핵심광물 등 협력 확대”

李, 브라질 국민방문 ‘정상회담’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핵심광물과 공급망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체육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밤 브라질 경제·금융 중심지인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상파울루에선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브라질 대통령 관저인 브라질리아의 아우보라다 궁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브라질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안보의 핵심축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우선 양국은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산업, 통상협력의 고위급 플랫폼인 경제·통상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건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원회’가 정상회담에 앞서 가동된 만큼,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방산, 항공우주, 핵심 광물, 디지털경제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양국은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놓고 실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오픈AI 첫 AI기기, 韓 첫 출시국 기대감

오늘 AI

샘 올트먼, 李 대통령과 협력 논의 韓 테스트베드 활용 기대감 보여

한국이 글로벌 AI 하드웨어 경쟁의 첫 시험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첫 AI 기기의 한국 테스트베드 활용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다.

스마트폰 시대 글로벌 신제품의 후발 출시국이었던 한국이 AI 시대에는 기술을 가장 먼저 검증하는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AI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올트먼 CEO가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기기에 대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데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아직 제품 형태와 출시 국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이번 발언을 한국을 AI 기기의 초기 검증 시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그동안 AI 모델과 서비스 중심이던 협력이 AI 하드웨어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그동안 애플 아이폰과 메타 AI 스마트글래스 등 글로벌 IT 기업 신제품의 1차 출시국에서 자주 제외됐다. 그러나 AI 기기는 스마트폰과 경쟁 방식이다. 생산량과 유통망보다 실제 이용자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해 AI 서비스를 고도화하느냐가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개인화 기능은 실제 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이 개선된다. 초기 이용자가 많을수록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 AI 기업에는 중요한 실증 시장이 된다. <2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성숙 “쫓박촌·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 점검…장마 피해복구도 서둘러야” /사진 뉴시스
▲통일부 “황강댐 감시 예측 능력 확보…주민 안전 대응체계 충분”

▲송영길 “대통령과 싸움하는 鄭도, 뒷받침만 하는 김도 아냐”
▲박지원 “부동산 해법은 닥치고 짓는 것…임대주택 많이 지었으면”

▲정청래 “李대통령 시존2 민주정부 구성돼야…제가 할 수 있다”
▲장동혁 “공천은 4년 내내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잠수타는 의원은 안 돼”